

이명박 대통령 고흥·여수 방문

“우주산업·엑스포 적극 지원”

나로호 실패 전화위복의 계기로

선벨트에 관심...엑스포 성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방문, 연구진들을 격려한데 이어 여수시청과 여수박람회 홍보관 등을 직접 찾아 차질없는 엑스포 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여수와 고흥을 잇따라 방문,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의 국민통합행보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군용 점퍼 차림으로 나로우주센터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 등으로부터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과 추가 발사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뛰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또 “늦었지만 우주산업에서 앞서가는 국가들과 합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도 주저할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현대그룹에 근무

하던 시절, 순수 국내기술에 의존한 첫번째 자동차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절반의 성공을 함으로써 (위성 발사기) 정말 어려운 일이라 체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KSLV-1)의 정상 궤도 진입 실패로 자칫 의기소침할 수 있는 나로호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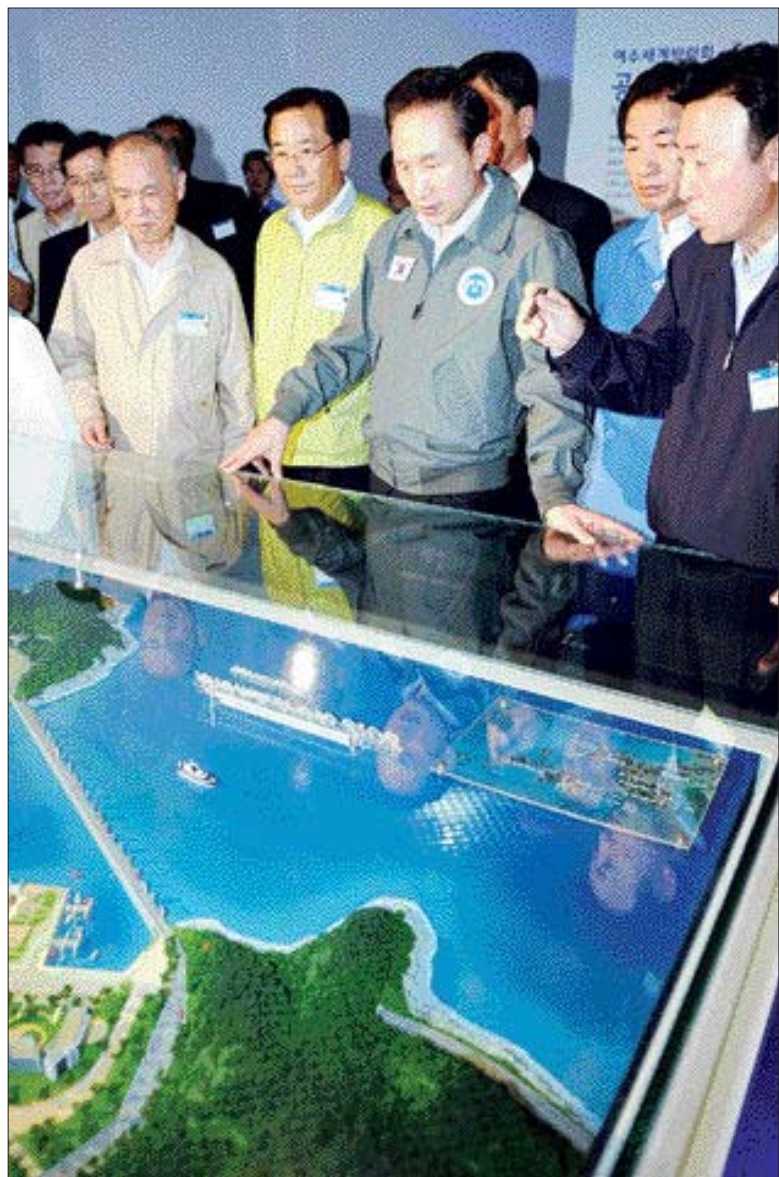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연구진과 기술진들도 이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였다.

궤도진입 실패 원인인 ‘페어링’ 부분을 담당한 장영선 발사체구조팀장은 “발사 광경을 지켜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발사 당시 심정을 밝힌 뒤 “비정상 분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조만간 원인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여수시청을 방문,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등으로부터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봉균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한 뒤 박람회 전시관 건설 현장과 홍보관 시찰에 나서 직접 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여수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남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해안을 세계에 내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 여수시 수정동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방문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박람회장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수 엑스포는 부대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남해안선벨트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엑스포는 3

개월간 하는 큰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월간 하는 큰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양만권 통합 논의’ 전격 합의

여수·순천·광양시장 합의문 발표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광양만권 3개 지자체 시장들이 28일 통합관련된 합의문을 전격 발표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용 광양시장은 이날 오후 여수시청에서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등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3곳 단체장은

정부의 통합 방침에 따라 광양만권 통합에 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며 “최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실무적 검토 외에 ‘통합논의에 인접자치단체(법광양만권)와도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회의는 다음달 22일 순천시에서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 발표 후 언론과의 직접적 대면을 피한 채 곧바로 자리를 떴다.

오 여수시장은 “합의문은 통합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실무적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통합에 합의했다’는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합의문 내용중 ‘인접자치단체(법광양만권)’는 보성, 고흥, 구례, 남해, 하동 등 인접 경남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들 시장은 지난 26일 3시 통합과 관련 비상식 모임을 가진바 있어 이날 합의문 발표 등이 예견됐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신종플루 백신 연내 1천만명 접종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신종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연내 1천만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기로 했다.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예방

접종이므로 조속히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내 우선 접종 대상 1천336만 명 중 1천만명에 대해 집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해외 제약사에 급파한 정부대표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당초 내년엔 공급받기로 한 300만 도즈를 연내 들여올 수 있도록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녹십자가

연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700만 도즈를 더해 집중인원을 확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녹십자가 내년 2월까지 추가 생산 가능한 백신 500만 도즈 등 모두 1천200만 도즈 가운데 일부인 500만 도즈에 대해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예방백신 1천만 도즈는 1회 접종시 1천만명, 2회 접종시 500만명에 해당하는데 향후 임상허가 결과에 따라 접종횟수가 결정된다.

백신은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유행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하는 인구의 27%에 접종될 예정이다. 접종 우선 순위는 의료·방역요원이 최우선, 임산부·영유아가 그다음이며 고위험군, 학생 및 군인 등 나머지는 질병위약계층의 추이를 감안해 추후 순위가 정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이 의결되면 연내 500만명분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구매해 비축물량을 1천31만명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이 정도의 물량을 상시 비축키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 단독 ‘나로호’ 조사 착수

우리 정부만의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교과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대전 항우연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나로호 발사 조사위는 지난 2007년 외부 우주전문가로 구성된 우주사고 조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로호의 궤도진입 실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장은

이인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맡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삼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 “우리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한국·러시아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 조사위 활동은 페어링의 한쪽이 분리되지 않은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첫 회의에선 항우연 측으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보청기 역사상 최초로, 보청기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보청기입니다.

대한민국 보청기 지존성

세기스타·세기보청기

40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기업

www.segibest.com

1588-8419 / 060-222-0100